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입니다!

☺ 장애물 없이 안전한 공항

🕒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확장성 있는 공항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체육
2020 09+10 Vol. 27

2020. 09+10
Vol. 27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R

Replay
restart

다시 시작
삶은 멘탈과의 싸움,
다시 시작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발행일 2020년 10월 16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대훈기획(T. 051-898-0330)

표지기사 COVER STORY



REPLAY RESTART 다시 시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인생길 개척하는 그대여!
 삶은 멘탈과의 싸움, 다시 시작이다



스포츠, 삶을 말하다

04 프롤로그

사람 & 열정의 온도

06 **쏟아질듯 바람을 가르고, 눈송이처럼 춤을 춘다!**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오성기 회장

잠재력 가득 스피릿

10 **포스트 장미란, 킥공을 들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

톡톡동호회

14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우승팀**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

Hot Issue

18 **첨단과학 견인하는 스포츠 한국의 리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전국 투어

22 **Activity, 자유롭게 비행하는 인간새를 꿈꾸다!**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을 날다



스포츠, 깊이를 보다

스페셜 특집

26 **수상스포츠 활성화 방안 - 부산조정협회 활동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조정협회 김준모 사무국장

30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마리나산업**
 요트탈래 김건우 대표

이슈 & 포커스

34 **부산광역시 e스포츠 현황과 과제**

스포츠센터 Info

38 **공존의 터, 부산실내빙상장**

건강IN 헬스+

40 **과잉의 시대가 낳은 질병, 비만!**

중인 스포츠

44 **가슴 뚫리는 스트라이크 볼링**

문화 스펙트럼

48 **볼링과 당구 관련 책과 영화**



스포츠, 행사를 담다

52 **구·군체육회**

54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클럽**

센터 info

56 **부산국민체육센터**

57 **북구국민체육센터**

58 **영도국민체육센터**

59 **강서구국민체육센터**

60 **단신 뉴스**



S

Replay restart



다시 시작하는 시간! Replay restart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양한 동기가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튼튼한 근육을 갖기 위해,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 좋아져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성취하려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끌어내는 힘,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그대를 일으키는 동력!

T

S

interview #01

쏟살같이 바람을 가르고, 눈송이처럼 춤을 춘다!

부산 배드민턴계를 견인하다!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오성기 회장 / 교수

모 국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휴학계를 낸다. 중산층 가정의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온종일 뒷산을 오르며 뛰노는 걸 즐겼던 그는 공주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다시 입학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에 이어 현재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시절 배드민턴 동아리에 참가한 인연을 시작으로 55년간 배드민턴인으로 살아왔다. 부산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부산외국어대학교 오성기 명예교수를 만났다.

“
맡고 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했고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받았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상승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한국 배드민턴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Badminton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박차

“배드민턴과의 인연은 대학 2학년 때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한 게 시초였어요. 그 당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좋았던 터라 스피드와 파워가 매력인 배드민턴이 제게 잘 맞았죠.”

1970년대 데레사여자중학교에 부임하면서 배드민턴팀을 창설, 10년 동안 배드민턴 감독 교사로 활동한다. 본격적으로 선수를 키우고 부산배드민턴협회 임원으로 활약한 오성기 교수, 1986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자 배드민턴팀을, 1991년에는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서 감독으로 선임돼 슬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잘 다니던 데레사여자중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7년 동안 대학 강사로 보따리 장사를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곧바로 정식 교수로 임용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물론이고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죠. 젊은 나이에 부산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직을 맡으며 선수 육성 방법이나 체육 행정에 관한 공부도 꾸준히 했고요.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인연도 이때 시작된 셈이죠.”

맡고 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했고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받았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상승했고 하나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한국 배드민턴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 감독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오성기 교수는 40대 중반에야 비로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된다.



▲ 승전보를 울리며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여자 배드민턴팀



▲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을 격려 중인 오 교수



**1990~2000년대
한국 배드민턴 부흥기를 이끌다**

“술한 세월 배드민턴 감독을 맡으며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들은 사실 한둘이 아니죠. 곽찬호 선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여자 배드민턴팀의 길영아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김지현 선수는 세계주니어배드민턴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외에 눈부신 기량을 선보인 이영숙, 정은화, 강복승 선수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들이 떠올라요. 이들 덕분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치고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배드민턴에 강한 대학으로 급부상한 셈이죠.”

오성기 교수는 한국 배드민턴의 부흥기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떠올렸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남자복식에 출전한 박주봉, 김문수 조가 금메달을 땀는데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읽을 만큼 힘이 잘 맞는 환상의 복식조였다고 했다. 또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 출전한 김동문과 길영아 조, 2008년 북경올림픽에 나간 이용대와 이효정 조 또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혼합 복식조로 배드민턴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했다.



“보람 있고 참된 인간을 만들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되고자 노력한 만큼 후학들에게
그런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인생길을
안내하는 스승으로 기억되길**

“확실한 결정 없이 안정적인 직업인 중학교 교사를 관두고 7년 동안 불안정한 대학 강사로 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슬럼프였어요. 그 시간을 잘 견뎌준 가족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를 믿고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전념토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 또 한창 커갈 시기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음에도 기특하게 자라준 두 자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미안함을 드러내는 오 교수에게 인생의 모토로 삼은 글귀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스승으로부터 생명을 보람되게 하기를 배웠다’ 폴르다크의 영웅전에 나온 글귀를 꼽았다. 스승은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보람 있고 참된 인간을 만들고 아름답

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안내하는 자라고 했다. 그런 스승이 되고자 노력한 만큼 후학들에게 그런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했다.

“피눈물 나는 고된 훈련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선행이 되어야만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기술 연마를 할 수 있어요. 스포츠인이라면 99%의 절망 상태에서도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희망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 도전해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승리로 이끄는 극기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신이 갖는 한계를 넘어 기적을 성취하겠다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마인드죠. 스스로 정한 목표를 꼭 이루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무아경의 세계,
배드민턴의 마력에 흠뻑 빠지길**

역병의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드민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얘기가 있다는 오 교수. 단체 합동훈련에서 비대면 개인훈련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훈련 환경은 선수들의 신체기관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코치가 작성한 연간 훈련 계획대로 개인 훈련을 소화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체력과 기술의 강화가 어려울 거라며 염려를 나타냈다. 결국 철저한 개인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 오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중국 서경(書經)에 ‘유비무패(有備無敗)’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요. ‘미리 준비가 끝난 선수에게 패배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 상대 선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충만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선수 개개인이 각성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강하는 기회로 삼는 알찬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하루 평균 강의는 4시간, 방과 후 선수들 훈련은 3시간가량,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는 오 교수. 퇴직 후에는 술과 담배를 끊고 하루 만보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건강 관리 중이다. 일단 배드민턴을 쳐 본 사람은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마련이라는 그는, 천둥 같은 스매시와 표범 같은 순발력, 고양이 같은 경쾌한 발놀림의 무아경(無我境) 세계를 소개한다. 배드민턴의 환상적인 마력에 빠져 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가닿고 삶의 활력을 찾길, 부산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계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선구자인 오 교수는 간절히 바랐다.

“유비무패(有備無敗)
미리 준비가 끝난 선수에게
패배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 상대 선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충만해진다.”



interview #02

포스트 장미란, 킹콩을 들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는 어려서부터 워낙 체격도 좋고 순발력이 남달랐다. 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건 어머니다. 평소 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가 아닌 재능을 키워주자는 주의였다. 손 선수가 역도선수가 된 건 해림초등학교 재학 시절 역도 코치였던 임종덕 지도자의 권유도 한몫을 했다. 한국 여성 역도계를 넘어 세계 여성 역도계를 뒤흔들 '포스트 장미란'이란 타이틀의 주인공, 손영희 선수의 탄생은 부모님의 열린 교육 철학에서 시작된 셈이다.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유쾌하고 즐겁게 만드는 아우라를 지닌 손 선수, 인터뷰 내내 마냥 사람 좋은 웃음이 가득했고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힘이 느껴졌다.



강국은 장난도 능청스레 받아넘기며 연신 웃음 가시지 않던 실업팀 역도선수들과 서문희 감독

올린 체급만큼 여유와 담력을 키우다!

“해운대에 위치한 요트경기장 옆에 역도훈련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방학에만 가서 연습을 했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4교시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내 시합은 6학년 때 처음 나갔고 대한체육회에 역도선수로 등록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죠.”

덕포여자중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내에 훈련장이 없어 인근에 위치한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역도훈련장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다. 오전 수업을 받고 오후 7시까지 훈련,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체력훈련을 이어갔다. 역도가 중량 운동이다 보니 무리한 훈련을 연이어 하기 보다는 하루나 이틀 몸을 쉬어주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다. 중학생 때까지 75kg 이하급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75kg 이상급에서 경기를 뛰었다. 현재는 87kg 이상급으로 대회에 나간다.

“사실 체급을 올릴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저 역시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나이였으니까요. 체급을 높이려면 몸무게 증량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당시에는 여자의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랄까. 한동안 기분이 우울했는데 함께 운동하는 언니들이 격려해줘서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죠.”

“
체급을 높이려면 몸무게 증량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당시에는 여자의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랄까.
한동안 기분이 우울했는데 함께 운동하는
언니들이 격려해줘서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죠.”



Korea Weightlifting



**기록을 깨는 찰나의 기쁨,
힘든 운동을 지속하게 만든 동력**

단번에 들어 올리는 인상보다 한 차례 목에 걸쳐 들어 올리는 용상에 더 강한 손영희 선수, 역도선수의 길로 들어서면서 매년 4번 정도 국내외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온 그녀다. 지난 2018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욕심을 부려 중량을 높이는 바람에 팔꿈치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다. 시합에서 이렇게 크게 다친 건 처음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수술을 했다.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기, 피눈물 나는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그토록 빠르게 회복한 건 손영희 선수의 재기 의지가 남달라서였다. 사고 발생 1년 후 도전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지금도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을 만큼 후유증이 큰 사고였지만 힘겨운 재활 과정을 이겨내고 최상의 결과까지 얻은 것, 지금도 그 날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찌릿하다고.

“기억에 남는 대회가 참 많아요. 2015년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3관왕을 땀어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각기 메달이 주어지는데 셋 모두 금메달을 딴 거죠. 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인상 122kg, 용상 160kg 합계 282점을 얻어 은메달을 땀고요. 물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 때 인상 122kg, 용상 166kg까지 들어 올린 게 제 최고 기록이긴 해요. 기록을 깰 때마다 그만한 희열이 없답니다. 순간 맛보는 찰나의 기쁨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Korea of
National Team Members*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 때 인상 122kg, 용상 166kg까지
들어 올린 게 제 최고 기록이었죠.
기록을 깰 때마다 그만한 희열이 없답니다.
순간 맛보는 찰나의 기쁨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



**내일을 기억하는
긍정의 언어에 희망을 담다**

국제대회에서 만난 북한의 김국향 선수와는 절친한 사이다. 김 선수와 첫 대면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같은 체급에 동갑이다 보니 말이 잘 통한다고 했다. 국제대회를 준비할 때면 잘 해내야 한다는 긴장감도 크지만 김 선수를 만날 생각에 늘 마음이 들뜨는 그녀다.

“여자 역도선수들의 수명이 길진 않아요.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역도는 중량 운동이고 특히 근력이 중요한데 30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근력이 약해지니까요. 세계적인 장미란 선수가 32세에 은퇴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올해 28세니까 2025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걸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역도 지도자를 계획 중이고요. 지금부터 미리 관련 자격증을 공부 중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손 선수, “어떻게든 잘 되겠죠!” 긍정의 언어로 내일을 기억한다. 훈련을 할 때나 대회에 나가면 분명 눈빛이 달라지고 매순간 안간힘을 다하는 국가대표이지만, 평상시에는 팀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손영희 선수, 그녀 안에 깃든 긍정의 기운을 무기 삼아 향후 역도 선수로 또 역도 지도자로서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개척하리라 기대해본다.

“ 차세대 역도 여제,
뒤돌리고 울통불통한 손
응원해주세요! ”



서문희 감독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선수는 실업팀에 와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어요. 역도선수는 근력 외에도 유연성과 순발력, 스피드가 다 중요한데 이를 다 갖춘 선수가 손 선수예요. 몸의 반동을 잘 이용해서 역도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저크’라고 하는데 특히 다리를 앞뒤로 벌린 채로 하는 ‘스플릿 저크’ 동작은 과히 세계 탑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역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온 손 선수가 지난 9월 23일(수)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금메달, 용상 금메달, 합계 금메달 3관왕을 수상한 것도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겠지요!

profile

- 2020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합계 금메달
- 2020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용상 금메달
- 2020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인상 금메달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합계 금메달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용상 금메달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 인상 동메달
-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75kg 이상급 합계 금메달
-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75kg 이상급 용상 금메달
-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75kg 이상급 인상 은메달
-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75kg 이상급 은메달
- 2018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90kg 이상급 합계 금메달
- 2018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90kg 이상급 용상 금메달
- 2018년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90kg 이상급 인상 은메달

1997년도에 창단, 역사만 해도 23년이다. 본래 동호회 명칭은 영문으로 People&Peoples를 줄인 P&P였는데 2018년에 한글 명칭인 '사람과 사람들'로 바꿨다. 술한 세월만큼이나 회원수는 늘고 줄기를 반복했지만 한번 맺은 인연(因緣)은 쉬 끊어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들'에 몸담은 지 22년차인 이범수 회장, 15년차인 황동완 회원 등은 동호회의 산증인이다. '사람과 사람들'은 2018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준우승에 이어 2019년 슈퍼컵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인연을 소중히 해온 술한 세월만큼 볼링 실력 또한 쉼 없이 쌓은 그들이다.

interview #03

경쾌한 스트라이크의 향연! 낮춤과 검손의 미덕을 득하다!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우승팀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



볼링보다 사람의 끈끈한 정이 좋은 모임

“회원수가 30명일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15명가량이 활동 중이에요. 남성이 10분, 여성이 5분 정도고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는 통에 활동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일단 들어오면 볼링보다 사람이 좋아서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만큼 끈끈한 정이 넘치는 사람 내음 가득한 곳이 바로 '사람과 사람들'이죠.”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1995년, 직장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즐겼던 게 볼링이었다는 이범수 회장, 1998년 친구의 권유로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에서 가입해 22년째 한결같이 동호회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사람과 사람들'은 30대부터 곧 60대를 바라보는 회원에 이르기까지 연령대 폭이 큰 편이지만 '볼링'을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한마음이다. 최근 제일 어린 30대 회원이 들어왔는데 서로 격의 없이 지낸다고. 정해진 모임은 2, 4주 목요일, 문현동에 위치한 우일볼링장에서 저녁 8시부터 시작해 4게임 이상을 친다. 통상 2시간에서 3시간가량이 소요된다.

“여성회원들은 경기 후에 나눠 먹을 먹거리도 많이들 챙겨오세요. 여성회원들 실력도 수준급인데 볼링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도 있고요.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회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 가족들까지 어울려 친하게 지낼 만큼 화기애애하고 돈독한 분위기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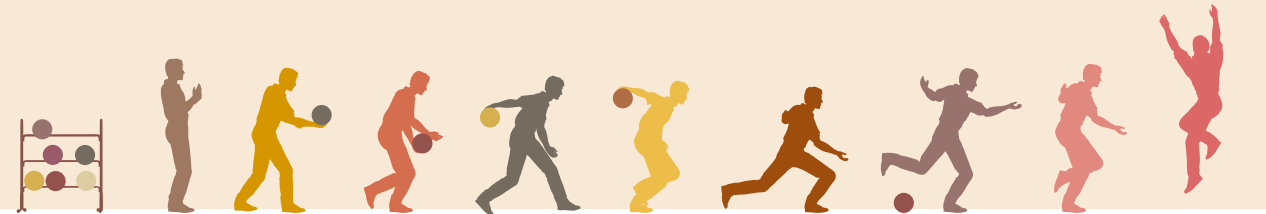
PEOPLE & PEOPLES

드라마와 같은 역전승,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덕분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때 부산 시내 12곳의 볼링장에서 예선을 치렀다. 어느 특정 동호회가 유리하지 않도록 볼링장을 바꿔가며 경기를 치른 것. 8년째 '사람과 사람들'이 볼링 실력을 갈고닦아온 문현동 우일볼링장에는 '사람과 사람들' 외에 5개 볼링동호회가 터를 잡고 연습에 매진 중이었다.

“협회 시험의 경우 경기가 있기 2~3주 전에 레인 정비를 어떻게 할지 알려줍니다. '레인 정비'는 볼링공을 굴리는 나무판 위에 기름칠을 한가운데만 할지, 양쪽에만 할지 등을 정하는 걸 말하는데 우일볼링장 사장님은 경기를 앞둔 팀을 위해 대회에서 정한 레인 정비와 동일한 레인 정비를 해 주세요. 아무래도 경기 때와 같은 레인 정비를 해둔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볼링공을 어떻게 굴릴지 미리 계산을 하고 선수 배치 등의 전략을 짤 수 있으니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그간 우일볼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연습을 했고 다가올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이범수 회장을 도와 버팀목 역할을 해온 황동완 회원, 우일볼링장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은 건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준결라운드 2차전이다. 총 8게임을 치는데 7게임일 때 32핀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8게임에서 상대팀 선수들의 실책이 이어졌고 운 좋게 연달아 그가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물론 경기를 뛰지 않은 회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총집합해 경기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열렬히 응원해준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만든 힘이었다고.





**삶의 진리, 인생의 지혜를
얻는 볼링의 힘**

“볼링에 매력은 역시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시원한 타격음이 아닐까 싶어요. 볼링을 할 때만큼은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몰입해서 공을 굴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요. 무엇보다 팀으로 경기를 할 때 볼링의 매력은 더 배가 되죠. 3인조 경기를 할 때 세 선수가 모든 경기를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선수마다 기량 차이도 있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 실수한 지점을 다른 선수가 커버해주는 것, 그게 진짜 배기 볼링의 매력 아닐까요.”

‘내가 못하면 내가 좀 해 줘! 내가 부족하면 내가 해결해!’ 이런 마음가짐이 볼링에서 통한다는 황동완 회원, 내가 제일 잘한다는 교만한 생각이 찾아들면 그때부터 패망의 길이란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실수를 타박하기보다 이해하고 용기를 주는 자세. 그러는 와중에 동료애가 싹트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이해’와 ‘공감’의 가치, ‘내’가 아닌 ‘우리’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스포츠가 ‘볼링’이라고 했다.

“특히 단체전을 할 때 더 볼링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 같아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상대팀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거나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볼링은 상대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손을 내밀어서 응원을 해주요. 경기를 하는 선수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태도랄까,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가 몸에 배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시합을 하다 보면 스페어 하나 놓친 게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세심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볼링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삶의 지혜를, 번뜩이는 통찰을 얻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섬세하고 진중할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내다볼 것, 자신을 낮추고 배우고 또 배울 것과 같은 진리 말이다. 이범수 회장의 볼링 예찬이 계속됐다.

“**3인조 경기를 할 때
세 선수가 모든 경기를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선수마다 기량 차이도 있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
실수한 지점을 다른 선수가
커버해주는 것, 그게
진짜 배기 볼링의 매력
아닐까요.**”



Bowling



**볼링, 맘껏 즐기자!
삶의 만족도 높이는 힐링처**

“잠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전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손동작이나 자세 등을 관찰하고 배우려고 한답니다. 또 제가 참여한 경기를 보면서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고쳐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죠. 볼링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스포츠라서 꾸준한 공부, 연구가 필요해요.”

실력만 믿고 감(感)으로 볼링을 치기 보다는 쉽 없이 배움의 자세를 견지해 온 황동완 회원, 2019년부터 바뀐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경기 규정을 알려줬다. 같은 팀이 반복해 우승하는 걸 막기 위해 볼링의 경우 전년도 우승 팀부터 공동 3위를 한 팀이 다음해 슈퍼컵에 참여할 경우 한 게임당 50점을 차감하는 ‘핸디캡’ 제도를 도입한 것. 매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우승만이 목표는 아니므로 ‘사람과 사람들’은 올해 역시 즐기는 마음으로 슈퍼컵대회에 참가기로 했다. 5인조 경기를 하는 부산광역시장배나 부산광역시볼링협회장배와 같은 대회에도 참가해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단다. 그 오랜 기간 우정과 실력을 촘촘한 씨줄과 날줄로 엮어온 그들, 진정한 ‘볼링 즐김’으로 인생 최대의 힐링을 맛보는 중이다.

사람과 사람들 수상내역

- 2018년 부산광역시배 슈퍼컵대회 슈퍼컵 준우승
- 2019년 부산광역시배 슈퍼컵대회 슈퍼컵 우승
- 부산MBC전국앤더스배 볼링대회 3인조 우승 5회, 3인조 준우승 6회
- 부산MBC전국앤더스배 볼링대회 개인전 다수 수상
- 부산시협회 우수클럽 수상 2회



첨단과학 견인하는 스포츠 한국의 리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ISS

 +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Sports Information Platform History

스포츠 지식의 교두보이자 시장화 정보의 플랫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980. 12. 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설립	2001. 01. (재)국민체력센터 분리 독립	2012. 06. UNESCO 석좌기관 선정
1989. 07. (재)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설립	2003. 05. 스포츠용품시험검사소 설치	2014. 02. 한국스포츠개발원 명칭 변경
1989. 11. 1급 경기지도사 연수원 지정	2004. 06.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2014. 11.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오픈
1994. 12. 국립체력센터 개관	2007. 07.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2016. 01. 체육인재육성재단 통합
1995. 05. 1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및 자격검정기관 선정		2017. 07. 체육인 진로지원 통합센터 개소
1999. 01.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으로 조직 통합		2018. 0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명칭 변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1980년 개원 이후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참가 및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국민 체력(휘트니스) 증진을 위한 측정 및 사업개발 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대의 요구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준정부기구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과거처럼 한국 체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끈 전문연구와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창의력과 자신감으로 산업발전을 선도한다. 명실공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국제적으로 우월성이 입증된 선수, 코치, 스포츠 과학자와 현장 교사, 지도자, 스포츠경영 전문가, 스포츠산업R&D전문가 등이 거점으로 삼을 지식의 교두보이자 시장화 정보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사업분야

01 스포츠과학 연구
엘리트 스포츠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운동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

- 기초연구 : 기초 이론과 융·복합 신지식 개발로 학문영역별 지식체계 발전
- 경기력 향상 연구
 - 효율적 운동모형 개발과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한 최첨단 스포츠과학 연구
 -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원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사업 : 전국 초·중·고교 및 일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 마련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연구 : 생애주기별 체력기준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과학 교류 : 학문교류를 통해 국제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스포츠과학화의 교두보 역할
 - * 아시아스포츠과학컨퍼런스, 스포츠과학 세미나 등





첨단과학 견인하는 스포츠 한국의 리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2 체육정책 연구
국가 체육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 선도

- 정책개발연구 : 체육 관련 법안 정비하고 제정 지원하며 체육진흥정책 평가, 분석하고 개발, 수립한다.
- 스포츠산업연구 : 스포츠 용품을 개발, 연구하고 품질, 기능 보안을 위한 시험 평가 연구한다. 또, 스포츠 용품 관련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을 연구한다.
- 체육정책 수립 지원 :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체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공공 정책 방향을 선도한다.
- 학술역량강화 사업 : 학회,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학술적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정책연구와 현안 대응력을 강화한다.
- 해외 조사연구원 파견 및 국제대회·회의 참석 : 국제 스포츠과학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선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
- 출판 및 문헌정보 제공 : 체육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해외 학술논문과 도서를 온오프 라인으로 지원한다.

03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
(2012년 6월 체육 관련 연구기관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석좌기관 선정)

- 청소년 스포츠 관련 아카이브 : 스포츠와 청소년 교육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 순수 학문 탐구 및 기존 발달 프로그램 사례분석자료 구축
-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개발·공유 :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회의, 국제행사, 워크숍을 통해 공유
- 연구 결과를 전파 :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발달'의 연구 결과물 및 프로그램을 아시아 및 전세계로 보급



04 스포츠산업 진흥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 견인

- 기술개발 지원 : 신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스포츠 용품 품질시험·인증
- 재정적 지원 :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신제품, 신기술 개발 연구 개발비 지원·저금리 융자 지원
- 일자리 지원 : 일자리지원 시스템 'Jobspois' 운영·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 마케팅 지원 : SPOEX 개최 해외시장 진출 지원·중소기업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05 체육인재 육성
체육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환경 구현

- 체육영재 : 최상위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선발 / 관리
- 여성스포츠리더 :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원 대상 여성 스포츠 인재 전문역량 강화
- 국제심판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 스포츠 멘탈코치 : 현장 중심의 멘탈 코치 육성, 지도자의 멘탈 트레이닝 활성화
- 국제스포츠행정가 :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 체육계학교 지원 : 훈련시설·장비 지원, 체육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 수준별 영어교육, 스포츠행정 전공교육, 해외 인턴십 및 학위 과정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 학생선수의 폭력 예방, 스포츠 인권보호 및 지도자 리더십 교육, 과학적인 지도방법과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지원
- 해외 우수 지도자 초청강습회 지원 : 국내 우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외강사 초청 강습회 개최 (훈련법 강의·실기, 성공사례 교육)
- 스포츠 청렴윤리 교육 : 체육단체 임직원,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비리 예방 강의 및 교육

Activity, 자유롭게 비행하는 인간새를 꿈꾸다!



패 러 글 라 이 디 ㅇ 의 성 지 , 단 양 을 날 다



남한강 물길에 자리한 충북 단양은 그림 같은 절경이 돋보인다. 해발 1,000m 내외 산봉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단양은 특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에서 바라본 단양 8경이 압권이다. 전국에서 체험비행 환경의 자연적인 조건과 경관이 탁월하고 연 300일 이상 비행이 가능할 만큼 바람의 기류 형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꼽히는 단양. 두꺼운 슈트를 입고 장비를 갖추고 맞바람을 기다린다. 이제 비상해야 할 시간! 공중에 둥둥 떠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남한강의 정취와 역동하는 단양의 모습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탁월한 즐거움을 당신에게도 권한다.



맞바람 불어오는 활공장에서 만남 특별한 자유

패러글라이딩은 패러슈트(낙하산)와 글라이더의 중간 형태인 패러글라이더를 갖추고 활강하는 항공스포츠다. 분해와 조립이 용이해 운반하기 쉽고, 글라이더의 활공성과 속도에 낙하산의 안정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다른 항공스포츠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다. 1984년 프랑스의 등산가 쿠아뱅이 개조한 낙하산으로 비행에 성공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고 적당한 맞바람이 불어오는 활공장이 필요하다. 경사면을 달려 내려가며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도 요구된다. 활공이 시작된 후에는 산줄을 조정하고 바람의 방향을 잘 따르면 원하는 만큼 비행이 가능하다. 1986년 보급된 이후로 항공스포츠 분야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충북 단양 외에도 서울 근교의 용인, 가평은 물론이고 영월과 평창, 제주까지 활공장이 들어서 있다. 보이는 풍경이 모두 다르고 활공장마다 활동하는 업체들도 다양하므로 취향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면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핵심 가이드

헬멧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비로 비행 시 꼭 착용해야 한다. 보통 가벼운 소재로 외부 소리가 잘 들리게 제작된 것으로 골라야 한다. 특히 연습이나 지상 착륙 시 무게중심을 잃어 머리 부분이 지면 및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헬멧을 바르게 착용하는 습관을 꼭꼭 익혀둬야 한다. 비행 시에는 지상보다 온도가 낮고 마주치는 바람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방풍 기능과 투습성을 겸한 고어텍스 소재의 비행복을 착용하는 게 좋다. 또 비행복 안에 보온용 의류를 덧입을 수 있도록 품이 넉넉하고 소매는 손등을 살짝 덮는 길이가 유용하다. 신발을 가볍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특히 밑창은 천연 고무소재를 사용한 신발을 신으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장비인 패러글라이더는 날개 형태의 캐노피(Canopy)와 이에 연결된 산줄 및 부속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국산 패러글라이더 장비는 세계시장의 점유율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과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업체마다 초급, 중급자의 장비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레벨에 맞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 중 비상상황에 대비해 보조 낙하산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

비행을 계획하기 전 활공장 지역의 기상 파악과 풍향 및 풍속 등 기류를 미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비 및 이·착륙장의 사전점검도 필수이다. 주 착륙장 외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 착륙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요 지형지물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심신이 안정되어 제대로 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을 시작하기 전, 비행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움닫기 전, 이륙할 방향에 장애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장비 및 기체 연결부에 이상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한다. 특히 캐노피(Canopy)에 이상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비행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완만한 내리막에서 높게 뛰어 최종 도약을 한다. 착륙 시에는 고도를 서서히 낮추고 속도를 최대 감속해 지면을 살며시 달리면서 가볍게 내려야 한다. 착륙지에 돌이나 우거진 풀과 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Paragliding

tip

01 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이용 시, 이것만은 지켜줘!

재미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 안전한 체험을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 ☑ 활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
- ☑ 캐노피(Canopy) 하단에 기재된 신고번호 확인(신고번호가 없으면 미등록 업체)
- ☑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 ☑ 이용약관 꼼꼼히 읽기
- ☑ 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후 탑승
- ☑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 따르기
- ☑ 안전모 등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

02 단양의 대표적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3곳

- 📍 단양패러글라이딩활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46-6
- 📍 단양두산활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254-6
- 📍 양방산활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날개가 나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나무가 10m 이상이다 보니, 한 번 걸리면 혼자 빠져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 이럴 땐 재빨리 연락을 취한 후 안전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비행하기 보다는 동호회에 가입해 함께 비행하는 것이 좋다. 단, 동료 파일럿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패러글라이더가 서로 엉켜 불시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비행해야 한다.

전문 활공장을 이용해 패러글라이딩 만끽하기

단양의 활공장 정상에 위치한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가지기한 장식들이 눈에 띈다. 이미 다녀간 체험객들의 즐거움 가득한 표정의 사진들과 달콤한 간식거리들에서 고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작은 배려가 느껴진다. 안전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영상을 통해 체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철저한 안전 교육을 듣게 된다. 다음은 복장을 갖춘 차레다. 평소에는 걸칠 일이 없는 위아래가 붙어 있는 슈트가 이색적이다. 파일럿의 도움을 받아 무릎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하고 배낭처럼 헤네스를 매면 준비는 끝. 개인 준비물은 필요 없지만 햇볕을 막기 위한 선글라스 정도는 지참하면 좋다. 혼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는 초심자를 위해, 각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는 2인승 텐덤 비행 코스가 준비돼 있다. 코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가량 비행할 수 있는데 그날 기상에 따라 비행시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바람의 흐름을 읽다가 때가 되면 전속력으로 달리고 날아오른다. 단양 패러글라이딩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패러글라이딩의 기본 코스로 롤러코스터, 바이킹과 같이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강도를 조절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온 사람이 그냥 비행과 아트 비행, VIP비행 중 하나를 선택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다.



SPECIAL + 01

수상스포츠 활성화 방안 부산조정협회 활동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조정협회
김준모 사무국장

Busan Watersports

종목단체의 관심+ 유관단체 협력의 유기적 조화



흔히들 부산은 산과 강, 바다를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입지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스포츠를 체험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수상스포츠는 맨몸으로 하는 바다수영부터, 바람을 이용하는 요트(딩기),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노(패들)를 이용하는 조정, 카약, SUP(Stand Up Paddleboard), 동력을 이용한 수상오토바이, 제트서핑 견인 스포츠인 수상스키, 워터슬라이드, 플라이 피쉬 등 새로운 신종 스포츠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수상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다. 부산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과 해수욕장을 갖고 있어 수상스포츠를 저변확대시키는 데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수상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종목단체의 관심과 유관단체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겠다. 우리 협회가 10여 년간 시민들에게 낯선 조정을 알리기 위해 한 사업들을 공유해 부산의 수상스포츠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시작해 본다.

부산, 세계적인 수상스포츠 대회의 장으로

조정은 제1회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유럽과 북미에서는 인기 있는 수상스포츠다. 더 보트 레이스(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조정교류전)는 전세계 2억 명의 시청 인구는 물론 현장에 2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정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국제조정연맹(FISA)에서도 조정의 저변확대와 신세대의 관심을 얻기 위해 2024년 프랑스올림픽에 바다조정인 코스탈로잉(Coastal Rowing)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접근성과 관람객의 편의, 해양스포츠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한 결정이라 하겠다. 부산광역시조정협회도 2009년부터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바다조정대회를 개최해 지금은 협회장배로 개최해 오고 있다. 조정대회가 서낙동강에서 개최돼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그들만의 리그'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안리와 수영강에서도 꾸준히 대회를 개최해 2018년에는 수영강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의 총장이 직접 대회에 참가하는 해양특성화대학교교류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제1회 한국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 친선조정대회(2018)

“ 부산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과 해수욕장을 갖고 있어 수상스포츠를 저변확대시키는 데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다. ”



▲ (위에서부터) 2009 부산시장배 전국바다조정대회, 2020 KIMA WEEK 퍼레이드

부산이 바다조정 경기인 코스탈로잉의 전지훈련장 뿐만 아니라 부산 앞바다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홍콩대회에 참가해 입상도 했고 현장에서 세계조정연맹 회장으로부터 부산 대회 개최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대회 개최가 성사되면 부산의 해안선을 전세계에 알리는 효과와 곧 개장되는 북항을 알리는 데에도 큰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프로그램
도입 필요**



조정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해양 조정학교를 14년째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조정선수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활체육조정교실을 통한 우수선수를 선발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교사 직무연수와 교육감배설내조정대회, 찾아가는 조정교실 등을 통해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과의 연계된 활동으로 올해에는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가락동에 있는 부산학생수상안전체험장에서 조정체험 프로그램이 채택되기도 했다. 교육청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수상스포츠를 초·중등 학생들에게 접할 기회를 제공(자유학년제, 클럽활동 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3개의 전국조정대회 개최(장보고기, 부산시장배, 협회장배)와 일본과의 교류전은 조정의 저변확대와 신인선수 발굴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 2019 부산시교육감배 실내조정대회



▲ 2019 중등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자체 및 대학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고무적인 변화**



최근 고무적인 일은 수영구에서도 해양스포츠계를 만들어 조직운영에 들어갔으며, 문체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유치해 구비를 합해 3년간 30억 원을 SUP특화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계기로 수영구는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를 활용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해운대에 빼앗긴 해수욕객과 레저인구를 되찾아올 기세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해양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상스포츠의 특성상 인프라(시설, 장비)의 정책적 확충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제도개선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해양특성화 대학답게 한국해양대학교에 올해 입학한 모든 신입생은 필수교양과목인 '앵커스피릿' 과목을 수강해야한다. 이 과목에는 해양스포츠실습 8시간이 배정돼 있어 SUP수업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SUP시합,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등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생겨 많은 학생들이 수상스포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usiness + Leisure

**해양수도 기지 아래
수상스포츠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수상스포츠는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힘든 만큼 수상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요즘 트렌드인 블레저(비즈니스와 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부산을 찾은 MICE(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이벤트와 전시)관계자들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부산테크노파크와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부산의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해양레저 장비의 국산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가 '스포츠융·복합산업' 도시구축에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22년까지 142억 원을 투입한다. 실제 몇 년 전 조정장비 국산화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중소조선연구원과 협업한 적이 있는데 국비 확보에 실패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협회가 저변확대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도의 기지 아래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행정조직에 해양레저계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체육회의 정책적인 지원과 교육청의 관심, 회장사인 부산항만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지원과 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생각된다.

조정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 01

부산시의 수상스포츠 정책적 지원
- 02

교육청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03

대학행사 및 교양프로그램 도입
- 04

기업체의 팀빌딩 프로그램 활용 (MICE와 연계)
- 05

수상스포츠 바우처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기회 제공
- 06

수상스포츠 장비의 국산화

SPECIAL + 02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마리나산업

요트탈래 김건우 대표

해양도시, 세계도시, 혁신도시, 경제수도, 아시아 영상 중심 도시, 지식 창조도시, 동남권 산업 벨트 중추 도시 등 다양한 부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 제시돼 왔지만 부산광역시청 외벽에 큼지막한 글로 새겨져 있던 누가 뭐래도 부산시의 도시 비전은 '동북아 해양수도'이다.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양특별시, 해양특구, 동북아시아 물류의 거점 등 다양한 전략적 개념이 적용돼 왔고 이를 이루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Marine Capital Busan



해양산업 도시 부산이 가야 할 방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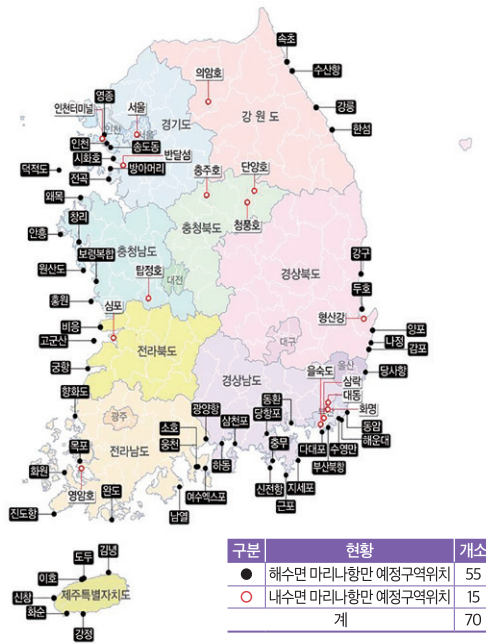
2019년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는 2만 7천여 개로 전국의 약 3분의 1 수준인 가장 높은 32%를 차지하고, 부산시 해양산업 종사자는 약 15만 4,086명에 달할 정도로 해양산업 도시 부산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부산시가 바라는 방향성이나 통계 자료만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해양수도 부산'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내심 '그런가?'라고 의심하는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해양수도라는 타이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해양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고, 해양금융 공공기관의 부재, 해운사 이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아직 해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현안이 아직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해양수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 해운·조선업, 항만·물류, 수산업 등 1·2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해양관광, 해양생태·환경, 해양문화 등 신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신해양도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중에서도 해양관광 및 레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마리나산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중이며 정부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오리알로 인식하며 적극 육성하고 있다.



▲ 레저용 요트 또는 보트를 정박하는 마리나의 전경



▲ 제2차 마리나개발계획



▲ GMI가 예측한 세계 레저보팅 산업 시장 규모 예측



▲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부산 마리나산업의 현황과 실태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고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의 종류에는 어선을 정박하는 곳을 어항(漁港), 상선이나 다른 나라 배가 드나들며 정박하는 곳을 무역항(貿易港), 공업 지대의 항구를 공업항(共業港), 군사 목적의 항구를 군항(軍港)이라 칭하듯 레저용 보트를 정박하는 곳을 마리나항(Marina)이라고 한다. 마리나(Marina)는 라틴어로 '해변의 산책길'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여가(Recreation)를 목적으로 한 요트나 보트 등 선박을 위한 계류와 보관을 위한 계류 보관시설과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클럽하우스, 쇼핑센터, 위락시설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리나'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해양레저 스포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9년 12월 시행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후 2010년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46개)을 수립하고 2015년 수정계획(58개)을 거쳐 지난 2020년 5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70개)을 발표해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2만 3,639척의 레저 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개

의 선석의 마리나 시설이 있다. 중장기 레저선박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29년에는 약 3만 5,000척의 수요가 추정돼 마리나 개발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 마리나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430억 달러(50조)의 시장 규모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6년까지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이며 630억 달러(73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마리나산업의 시장 규모를 분석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분류 기준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산업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지만 그 성장세만큼은 매우 가파르다. 개인 요트를 쉽게 빌려서 탈 수 있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5년 이후 마리나 서비스업(선박 대여업 및 보관·계류업) 등록업체는 5년 만에 207개사로 증가했고 매년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32개사의 회원사가 조직한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관련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 네덜란드 브루나이세 마리나의 클럽하우스



▲ 요트들이 뿔뿔하게 정박돼 있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부산 마리나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트와 보트가 등록돼 있고, 배후인구가 많으며 편리한 교통으로 도심인구의 접근성이 높다. 비교적 기후가 온화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작고 깊은 수심 등 자연환경 또한 양호하다. 또한 부산시의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 해양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 및 각종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수행, 각종 관련 기관과 단체가 부산에 있는 등 사회 환경 또한 우수하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마리나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마리나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천혜의 조건을 갖춘 부산이라도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마리나항이란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부산시 마리나 개발 계획에는 해수면에 수영만(재개발), 해운대(운촌항), 북항, 다대포, 동암 등 5개 마리나와 내수면에 을숙도, 화명, 삼락 등 3개 마리나항을 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 중이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BUSAN MARINA

더 유용하게 만들 것, 부산 마리나산업의 미래

마리나항만이 개발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새롭게 마리나를 짓는 것(건설)과 기존 마리나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개발(開發)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이라는 의미처럼 새롭게 짓거나 기존의 마리나를 더욱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재개발)을 모두 마리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마리나 개발은 기존의 활용되지 못한 친수공간(바다, 강, 호수)을 더욱 더 유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마리나 개발보다 자연 그 모습 그대로의 가치가 높다면 결과적으로 보존이 더욱 더 유용해지는 것이므로 개발을 해서 안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마리나산업 선진국들이 마리나산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있는 경험법칙 그리고 부산의 해양레저 시장의 성장 추이, 부족한 레저선박의 계류시설 등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가 마리나산업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개발과 미개발의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리나 개발은 불가피하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리나 개발이 지체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부산광역시 e스포츠 현황과 과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환 교수

e스포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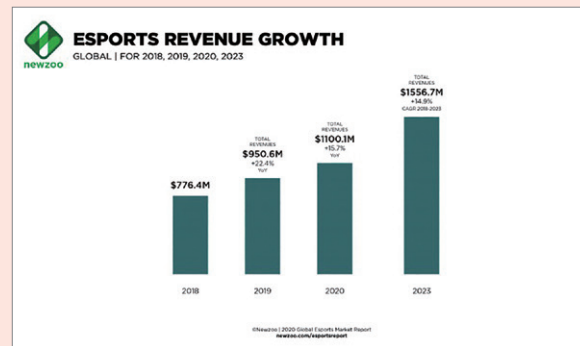
‘Electronic Sports’의 약자인 e-Sports(이하 e스포츠)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e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으로 정의된다. 처음 이 용어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가장 큰 논쟁은 과연 ‘게임을 스포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아직도 이러한 논쟁이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학계와 산업에서는 e스포츠를 스포츠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실제로 e스포츠와 관련된 정책들은 스포츠의 테두리 안에서 수립되고 있다.

국내 e스포츠는 1990년대 후반 IT산업 집중 육성의 일환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PC방과 e스포츠 원조인 ‘스타크래프트’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9년에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설립되고 국내 최초의 게임 방송 콘텐츠인 ‘99 프로게이머 오픈’이 시작되면서 스포츠로서의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e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로 프로게임단들이 창단되었고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과 같은 히트작이 출시되면서 e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e스포츠는 명실공히 전세계적인 문화현상이자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된 4차 산업의 대표 융합 콘텐츠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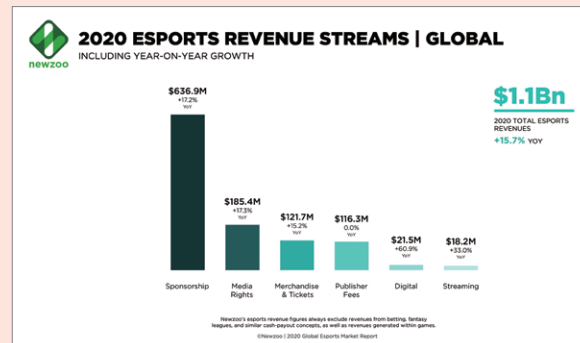
Electronic Sports

국내의 e스포츠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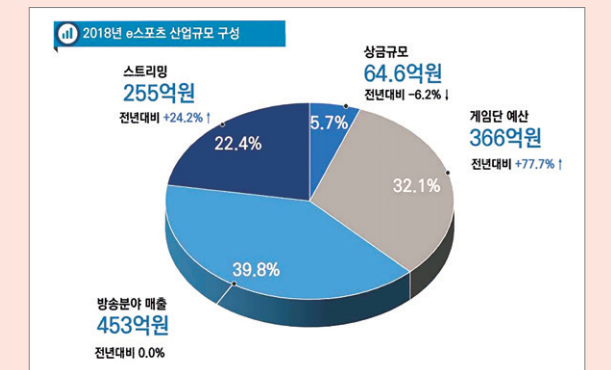
2020년은 세계 e스포츠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최초로 한화 1조원을 돌파할 기념비적인 해이다. 게임산업 전문 조사기관인 뉴주(Newzoo)는 ‘2020 세계 e스포츠 시장 보고서’에서 e스포츠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약 11억 달러(한화 1조 3천억 원)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1 참조).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의 수익 구조는 스폰서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기업들이 e스포츠의 잠재력과 가치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e스포츠 시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계권료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스폰서십 다음으로 높은 수익 비중을 차지한다. 스폰서십과 중계권 수익의 뒤를 이어 관람티켓 및 상품 판매 수익, 종목사의 투자, 디지털 판매 및 스트리밍 등이 나머지 수익구조를 구성하고 있다(그림2 참조). 이렇듯 e스포츠가 거대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미디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천은 e스포츠 시청자이다. 2020년 전세계 e스포츠 시청자 수는 5억 명에 육박한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직접 즐기는 사람은 약 25억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연간 약 180조를 게임에 소비한다고 보고되었다. 전통적인 프로 스포츠 리그의 시청자 수와 그 성장세를 비교해볼 때 e스포츠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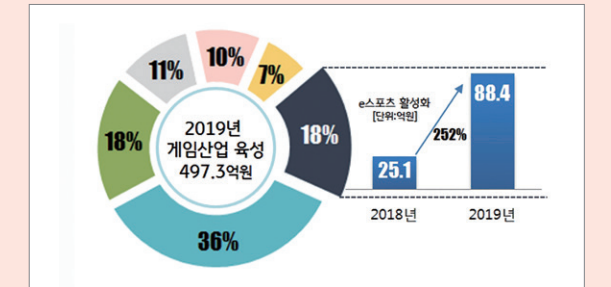
▲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항목	예산 (단위: 억원)
e스포츠 활성화	88.40
게임제작 지원	176.14
게임유통 지원	90.80
건설게임문화 활성화	55.19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50.03
게임산업 정책 지원	35.88

▲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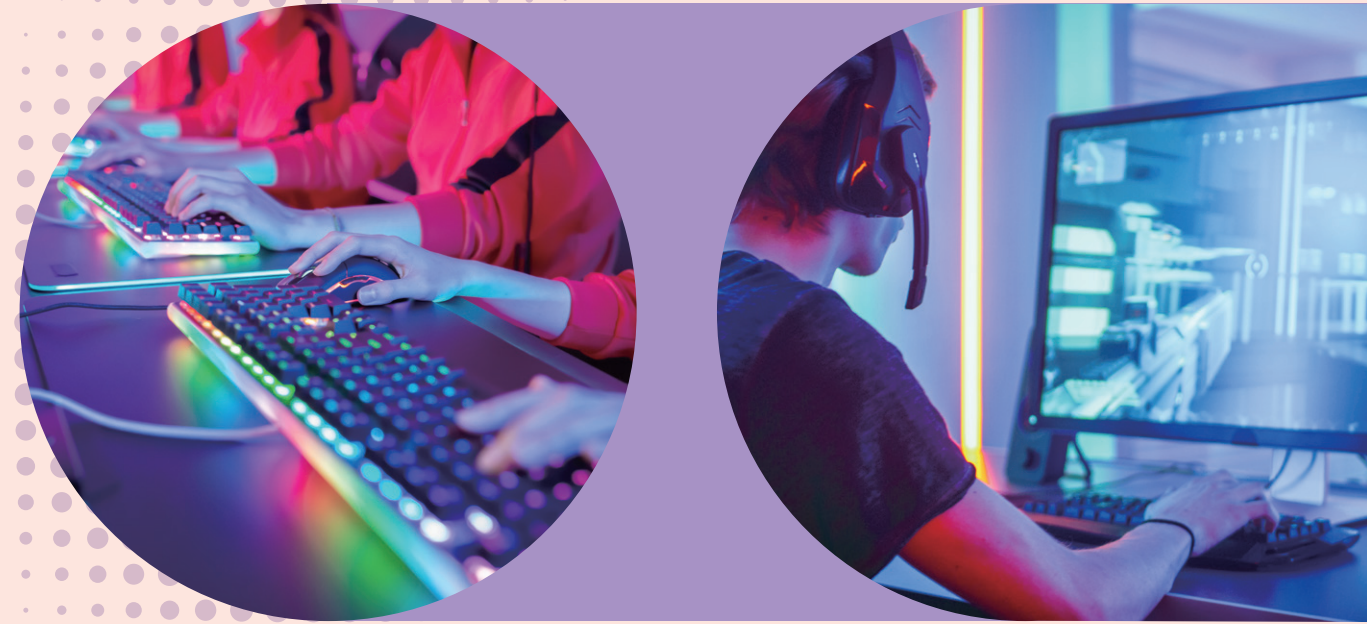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내 e스포츠 산업은 어떠한가? ‘2019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8년 기준 1,13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방송분야가 453억 원, 게임단 예산이 366억 원, 스트리밍이 255억 원, 상금이 65억 원을 차지한다(그림3 참조).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 추산에서 스폰서십이 제외되었지만,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 다양한 기업이 e스포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산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e스포츠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252% 예산 증액을 집행했으며(그림4 참조),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위해 부산, 대구, 전북, 광주, 대전, 경기도에 추가 예산을 배정해 지역 e스포츠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e스포츠



한국은 전세계 게임 유저들에게 e스포츠 중추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e스포츠 중추국에서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광안리 해변에서 해마다 개최된 e스포츠 결승전 행사가 개최되었고, 특히 2004년 첫 행사에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이는 같은 날 사직야구장에서 개최된 프로야구 올스타전 관중 1만5천여 명을 압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e스포츠가 거둔 성적은 '광안리대첩'이라고 회자되며 이런 의미에서 부산광역시는 e스포츠의 '성지'로 인식된다. 각 시·도 지자체가 e스포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고 부산광역시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는 이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단(GC부산 · Game Club Busan) 지자체 최초 결성, 국제e스포츠연맹 유치, 10년 연속 G-STAR(국제게임전시회) 개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유치, 부산광역시의 e스포츠 산업 부흥에 대한 의지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게임용·복합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Busan
e-Sports



향후 과제



부산광역시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e스포츠를 관광, 이벤트, 미디어, 교육 등 광범위하면서도 개성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e스포츠 성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e스포츠의 저변확대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건 e스포츠의 가장 큰 약재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에 나섰지만 이는 이미 e스포츠가 중독이라는 위험을 담보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이미지 개선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e스포츠의 각 종목에 해당되는 게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와 긍정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e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e스포츠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e스포츠 산업인력 양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협회와 선수단 운영 실무자,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심판, 감독, 코치, 선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현재 각 시·도가 e스포츠 패권 전쟁에 뛰어들어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만이 운영할 수 있는 e스포츠 콘텐츠 역시 요구된다.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매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e스포츠 이벤트에서부터 국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중소규모 e스포츠 이벤트까지 관광과 e스포츠가 결합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상설 경기장과 게임용·복합타운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의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e스포츠 리그 수를 감안했을 때 각 시·도에 설립되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의 가동률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호인과 아마추어대회, 대학 e스포츠리그, 준프로, 프로 단위의 이벤트로 세분화해서 운영할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이외의 콘텐츠를 활용한 인프라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과제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e스포츠가 스포츠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상당 부분의 정책집행이 스포츠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체육 및 스포츠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지닌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보다 앞장을 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부산광역시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동계종목 전문 선수 육성,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돕다

공존의 터, 부산실내빙상장

빙상 불모지인 부산에서 국제 규격을 갖춘 실내빙상장 중 하나인 부산실내빙상장.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운영을 맡았다. 최적의 빙질과 우수한 강사진을 갖추고 역량 있는 선수들을 육성해온 부산실내빙상장, 그곳을 찾았다.



2025년 8월까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맡기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92.39㎡ 규모에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락카룸 등을 주요 시설로 갖추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남구실내빙상장의 경우 주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지어졌다면 부산실내빙상장은 250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부산 북구청이 운영했지만 지속적인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 3월 북구청은 부산광역시에 빙상장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6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심의한 결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과해 수탁·운영을 맡게 됐다. 이로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부산실내빙상장을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동계 스포츠 공간으로

부산의 아이스링크장을 대표하는 부산실내빙상장은 2005년 7월에 처음 문을 열었다. 부산의 관문인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인 덕천동에 위치, 부산 전역에서 접근이 쉬운 게 장점이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평일 300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얼음 위에서 스피드를 즐겼다. 오랜 경험 노하우로 평상시 빙질도 최상으로 관리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최첨단 정빙기를 들여와 더욱 양질의 빙질로 관리 중이다. 입장료는 3시간에 어린이는 2천5백 원, 청소년 3천 원, 성인 4천 원이다. 본인 스케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3천 원에 스케이트를 빌릴 수 있다. 월간 정기 강습의 경우 어린이 6만 원, 청소년 7만 원, 성인 8만 원에 강습을 겸해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지난 8월 초 부산실내빙상장에 부임한 정석원 센터장에 따르면 부산실내빙상장 하루 유지비만 해도 인건비까지 포함해 2백~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다. 일단 빙상장의 얼음이 녹으면 다시 얼리는데 드는 비용만 5천만 원 정도. 1년 365일 불이 켜진 기계설에는 3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부산실내빙상장센터 정석원 센터장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핫플레이스로 재도약하길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서 하는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오래돼 빙상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거 같아요. 하지만 운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빙상 종목은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전의 전성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석원 센터장은 향후 초·중·고급반으로 세분화된 정기 강습 개발과 국책사업인 스포츠클럽을 유치해 빙상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 최초로 건립된 국제 규격의 빙상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적화가 된 운영체제와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 현재는 텅 비어 있는 빙상장에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로 발 디딜 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빙상장이 되길, 그야말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가 되길, 열정과 활력, 에너지가 가득한 스포츠 공간이 되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부산실내빙상장 문턱이 낮도록 수많은 이들이 오가는 열린 스포츠 공간으로 다시금 급부상하길 정석원 센터장은 간절히 바랐다.

과잉의 시대가 낳은 질병, 비만!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의 증가는 없는 드문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전신의 체지방 축적보다는 '복부비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에는 피하지방보다는 복강 내 내장지방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내장지방형 비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만 환자와 비만 관련 질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의료비용의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비만을 독립된 질병으로 생각한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을 때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이다.”

비만을 부르는 원인과 증상

비만은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을 때 여분의 에너지가 체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현상이다. 즉 먹은 것에 비해 활동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경내분비학적 물질들과 에너지대사에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의 이상이 유전적 또는 현상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연관돼 나타난다.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내분비계통 질환, 유전적 요인, 정신적 요인 및 약물 등이 현실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만은 숨찬 증상, 관절통 이외에도 각종 합병증에 의해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비만 측정의 척도, 허리둘레의 중요성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이 비만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측정을 통해 진단하게 된다. 체질량지수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 우리나라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인 경우에 비만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운동선수 등 근육량이 많은 경우 체지방이 많지 않아도 비만으로 진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체질량지수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허리둘레 측정이다.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에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있다.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비만 관련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말라도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은 내장지방이 많은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내장지방의 과다 여부를 허리둘레로 알 수 있다. 허리둘레는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해 측정한다. 측정 위치는 갈비뼈 가장 아래 위치와 골반의 가장 높은 위치의 중간 부위를 측정한다. 측정 시에는 줄자가 연부 조직에 압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해 0.1cm 까지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자에서는 90cm 이상, 여자에서는 85cm 이상일 때 내장지방이 많은 복부비만으로 진단한다.



“
비만은 사망의 위험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조절, 운동 및 행동조절의
병합이다.”

일차성 비만과 이차성 비만의 차이

비만은 일차성 비만과 이차성 비만으로 나눈다. 일차성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증가해 발생하며, 이차성 비만은 유전, 내분비질환, 약제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비만의 90% 이상은 칼로리 과잉과 연관된 일차성 비만이다. 일차성 비만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한다. 부모 모두가 비만일 경우 80%, 부모 한 명이 비만일 경우는 40%, 부모 모두가 비만하지 않을 경우는 7%에서 자녀가 비만일 수 있다. 그러나 비만 환자의 2/3는 어렸을 때는 비만하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비만해진 것으로 알려져 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 요인 중 첫 번째 원인은 과식을 포함한 잘못된 식사 종류와 습관.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고지 식사' 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탄고지 식사의 경우 초기에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서 체중감소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의 잦은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된다.

각종 질병 원인, 비만의 심각성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지방간, 담낭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수면무호흡증, 통풍, 골관절염, 월경 이상, 대장암, 유방암 등이 대표적인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다. 또한 비만은 사망의 위험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의 위험이 높아진다. 식사조절, 운동 및 행동조절의 병합은 비만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물이나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생활습관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식사치료 시에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며 목표 체중으로의 감량을 목표로 한다. 운동의 체중감량 효과는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만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고 건강과 관련된 많은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운동은 주 3회 고강도 운동을 주당 200분 이상, 또는 2,500kcal 이상을 소비하는 유산소와 저항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약물치료는 비만의 식사치료나 운동 등의 비약물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하면서 보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Food therapy

01 비만을 잡는 음식! Food for obesity! 감마리놀렌산의 효능! 잣

한 알의 잣 속에 감추어진 놀랄 만한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마리놀렌산이다. 하루 10개 정도씩 매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는 정혈작용이 일어나는데 체내에 남아 있는 비만의 원인인 칼로리를 소비해 각종 장기의 부담을 없애준다. 잣이 뇌의 만족 중추를 자극해 위를 안정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해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돕는다.



02 칼슘, 철분 함량 높은 알칼리성 식품, 톳

톳은 7~8년 동안 사는 다년생 해조류인데 일명 '녹미채'라고 부른다. 톳은 해조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슘과 철분의 함량이 다시마의 2배나 된다. 비만에 좋은 톳은 섬유성 물질로 효용성 성분은 '알긴산'이다. 톳의 이 섬유소는 수분을 흡수해 분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대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한다. 톳은 칼로리가 낮고 만족감을 준다.



03 단백질과 리놀레산 풍부, 두부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리놀레산'이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비만 방지도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 두부는 만족감을 줘 과식을 억제한다. 또 두부에는 우유 한 컵과 거의 같은 양의 칼슘이 들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 두부 속의 칼슘이 항스트레스 작용을 해 이런 것을 막아준다.



*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09호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

초 보 가 선 수 를 이 기 는 유 일 한 스포 츠

가슴 땡 뚫리는 스트라이크! 볼링

전문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핀을 남김없이 쓰러뜨릴 때, 지켜보는 이들도 통쾌함을 느낀다. 볼링은 파괴 본능을 만족시키는 스포츠다. 하나의 볼로 열 개의 핀을 일순간에 쓰러뜨릴 때 맛보는 후련함, 스트라이크의 묘미를 맛보면 이미 볼링의 매력에 사로잡힌 것.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각광을 받아 온 볼링의 세계, 들여다본다.



BC 7000년 전, 볼링의 기원을 말하다



볼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현대 여가 스포츠 중 하나로 재미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한 현대적인 경기로 널리 알려진다. 그러나 현재의 볼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의 볼링경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현존하는 스포츠 경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볼링의 기원은 BC 7000년 전 이집트 문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이집트 고대 고분에서 발견된 고대 문물 가운데 어린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고분에서 돌로 만든 공 3개와 원추형 모양의 핀 9개 그리고 몇 개의 대리석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행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들이 원시적인 놀이기구로 오늘날과 비슷한 볼링 장비 형태로 보고 볼링의 시초로 추측한다. 이 유물은 현재 영국의 런던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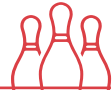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볼링의 역사는 13~14세기경 중세 유럽에서 처음 볼링이 등장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세의 볼링은 현재와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상의 의식이나 점을 치는데 이용됐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회에서는 그 당시 성행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핀을 악마로 간주하고 복도의 한 구석에 핀을 세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둥근 물체를 굴러 넘어뜨렸다. 핀을 잘 넘어뜨리는 신도는 신앙심이 두텁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잘 넘어뜨리지 못하는 신도는 신앙심이 부족한 것으로 여겼다.

매력 만점 볼링이 지닌 특성 Five!



첫째, 볼링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스포츠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밀고, 당기고, 치고, 받고, 던지고, 차고, 때리는 등 근원적인 경향을 지녔다. 이러한 경향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볼링은 신체 활동을 통해 공을 던져 핀을 때리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볼링 초보자라 할지라도 종종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으니 그 기쁨은 배가 된다. 둘째, 볼링은 신사적인 스포츠다. 신체의 부딪침이나 심판의 권한에 의한 이해득실, 타인의 방해 없이 행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땀을 흘릴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셋째, 볼링은 사회성을 키워주는 스포츠다. 볼링장에 보통 친구와 연인, 가족 등과 함께 가는데 정다운 대화와 흥겨운 몸짓,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대감이 커진다. 팀을 이뤄 경기하는 동안 협동심과 단결력이 향상된다. 넷째, 볼링은 자기계발 스포츠다. 스텝의 크기와 스윙 속도의 완급, 정확한 릴리스 타이밍, 효과적인 리프팅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을 18m 앞에 있는 핀에 직접 던져 넘어뜨린다면 모르겠지만 나무판 위에 굴러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일정한 회전과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볼링은 운동량이 상당한 스포츠다. 볼링은 3게임을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의 방출량이 약 500kcal 정도. 특히 장소, 계절 그리고 도구 등의 많은 요인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기 쉽다는 점에서 볼링의 운동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볼링의 운동량과 비슷한 신체 활동으로 산책 80분, 축구 18분, 테니스 20분, 사이클 27분, 골프 18분, 조깅 15분, 야구 4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About
세부적인 볼링 용품



볼링공의 무게는 약 7.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둘레는 27inch(약 68.58cm)로 직경이 일정해야 한다. 또 공의 표면에는 어떤 이물질도 부착할 수 없고 볼의 경도는 72듀로미터(d-urometer) 이상의 딱딱한 정도를 가져야 한다. 재질은 내·외부 모두 금속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과거 공의 표면 재질은 경질고무, 내부는 코르크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합성수지를 이용한다. 볼링화는 볼링 스텝의 특성상 마지막 스텝은 발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이딩하는 발(오른손잡이의 경우 왼발)의 밑창은 가죽으로 돼 있고, 반대쪽 발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로 돼 있다. 무거운 중량의 공을 들고 신체적, 정신적 집중을 요하는 경기가 볼링이기 때문에 투구를 할 때 순간적인 힘과 함께 유산소적 지구력이 필요하다. 볼링을 계속 하다 보면 건강 유지와 증진뿐만 아니라 근육 계통의 발달, 지구성, 민첩성, 평형성 등도 증진·강화된다.

“볼링을 계속 하다보면 건강 유지와 증진뿐만 아니라 근육 계통의 발달, 지구성, 민첩성, 평형성 등도 증진·강화된다.”



Bowling



볼링의 경기종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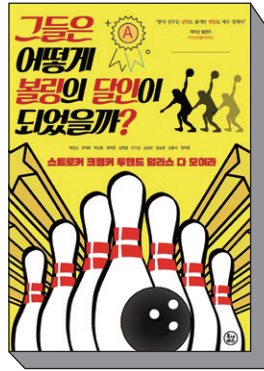
볼링경기는 개인종목이면서 단체전까지 치루는 종목이다. 일반적인 국제대회의 경우 6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 개인전, 2인조, 3인조, 개인종합, 마스터즈의 6종목의 경기를 한다. 각 종목 당 선수 1인은 6게임씩 경기한다. 개인전은 6게임, 2인조는 12게임, 3인조는 18게임, 5인조는 30게임의 총점으로 순위를 정한다. 5인조의 경우 3게임씩 전반블록과 후반블록으로 나누어 전반블록 경기 후 1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투구 선수도 바꿀 수 있다. 개인종합은 각 개인별로 치른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의 24게임 총합계 점수로 순위를 정해 시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즈경기는 볼링 종목에만 있는 특별한 경기방식으로 개인종합 16강에 든 선수 16명이 라운드로빈으로 풀리그 경기를 하고 상위 4강이 다시 사다리 방식으로 4-3위, 승자-2위, 승자-1위의 경기를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특이한 점은 라운드로빈 경기 중 승자에게는 10점, 비길 경우 각각 5점의 보너스 점수를 득점에 더하게 된다. 최근 몇몇 국제대회에서는 16강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는 마스터즈 엘리미네이션(Masters elimination)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볼링 핵심 용어

- **프레임(Frame)** 볼링 한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1게임은 10프레임
- **오픈 프레임(Open frame)** 스트라이크 혹은 스페어 처리 시 넘어트리지 못한 프레임
- **에러(Error)** 2회의 투구를 해도 핀을 다 넘어트리지 못한 경우
- **스플릿(Split)** 첫 번째 투구에서 핀과 핀 사이가 벌어져 남아 있는 것
- **워시아웃(Washouts)** 1번 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핀과 핀 사이가 벌어져 있는 부분
- **체리(Cherry)** 스페어 처리를 하려고 2구를 던졌으나 앞 핀만 넘어뜨린 경우
- **스페어(Spare)** 제1구의 투구 이후 남은 핀들을 2투구로 전부 넘어뜨리는 것
- **애버리지(Average)** 볼링 한 경기의 평균 점수
- **앵커맨(Anchor-man)** 볼링을 팀으로 구성해 진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투구하는 사람
- **리드오프맨(Lead of man)** 팀 구성 중 최초로 투구를 하는 사람
- **하이게임(High game)** 1게임 최고 득점
- **피니시(Finish)** 투구를 할 때 마지막 스텝으로 진행되는 동작
- **브릿지(Bridge)** 볼의 중지손가락 구멍과 약손가락 구멍의 간격을 명칭
- **키핀(Key Pin)** 남은 핀 중에서 스페어 타구를 진행 시 가장 핵심이 된 위치에 있는 핀
- **스크래치(Scratch)** 핸디캡이 없는 경기
- **올커버(All Cover)** 단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으며 스트라이크 또는 스페어로 처리한 경우
- **임팩트 포인트(Impact point)** 투구된 볼이 핀과 부딪치는 시점
- **랭스(Length)** 볼이 욱 지점까지 도달되는 거리
- **스키드(Skid)** 볼이 레인에 도포된 오일에 의해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
- **드롭 볼(Drop ball)** 옆에 떨어뜨리는 볼
- **스위퍼(Sweeper)** 전면에 설치된 장치로 핀을 털어내기 위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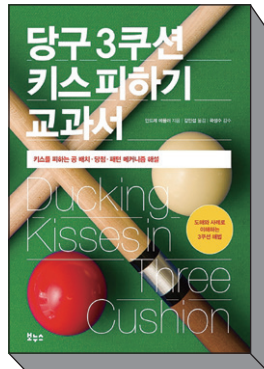
* 대한볼링협회 자료 참조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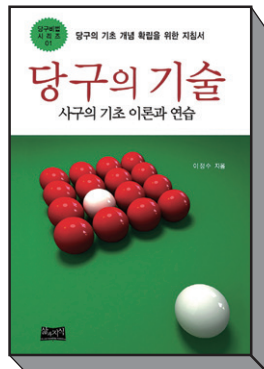
그들은 어떻게 볼링의 달인이 되었을까? 지음_박경신, 김용석, 유재호 외 7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과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스포츠가 볼링의 매력이다. 이런 볼링의 매력을 한 권에 담아낸 책, '그들은 어떻게 볼링의 달인이 되었을까?'는 내로라하는 프로볼러 10명이 들려주는 볼링 철학과 인생을 들려준다. 삼호컵을 비롯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라운드윈 재팬컵에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이자 배우 김수현과 가수 채연, 이홍기 및 민우혁 등을 지도한 연예인 코치로도 유명한 볼러 박경신부터 늦깎이 선수로 현재 볼리즘 트레이닝센터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클래식예 가까운 크랭커 스타일을 구사하는 볼러 김승민.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단기간 집중하여 프로 테스트에 도전, 당당히 프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김용석 등의 볼링 철학과 인생을 만나 볼 수 있다.



당구 3쿠션 키스 피하기 교과서 지음_안드레 에플러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해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당점과 공 배치, 두께, 스트로크의 세기 정도 등이 매우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당구란 아주 미묘한 게임으로 공 위치나 당점이 조금만 바뀌어도 모든 궤적과 움직임이 달라진다. 해법이 아무리 그럴듯 해도 공의 위치와 당점, 두께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 3쿠션을 연습할 때는 이 책의 장점을 심분 활용하기 바란다. 책이 제안한 좌표를 당구대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 위치에 공을 놓고 연습해보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당점과 회전, 두께, 스트로크의 세기 정도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연습하면 해법이 제시하는 원리를 체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이 제안하는 기본 패턴과 원리를 몸에 익히고 응용 사례까지 연습한다면, 실전에서 멋지게 키스를 피하며 득점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구의 기술 1: 사구의 기초 이론과 연습 지음_이정수

기초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본기를 충실히 다듬을 때 실력이 느는 것은 당구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사구에 관한 당구 이론과 실습 예제를 모두 포함한 실전 지침서다. 당구에 새롭게 입문하는 사람은 과거처럼 아무런 이론적 체계가 없는 유경험자의 지도에 의존하면 안 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면 샷(shot)의 의미를 알게 되고 창의적인 샷(shot)이 가능해 당구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당구 실력이 빠르게 향상한다.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경우를 예제로 싣고 각 예제의 이론적 배경과 타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책 내용이 실전에 바로 적용되고 책에 나온 연습 과제를 반복해 연습하다 보면 실력은 향상된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예제를 반복해 연습하면 어느새 상황에 따라 필요한 타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당구대에서 당당하게 창의적인 샷(shot)을 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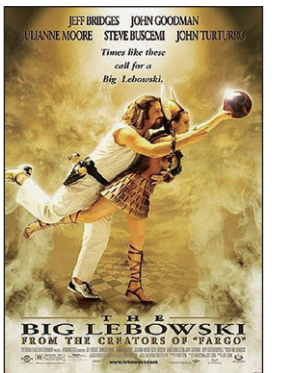
스플릿 감독_최국희 출연_유지태, 이정현

스트라이크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다
영화 제목인 '스플릿'은 볼링 용어로 첫 번째 투구 후 핀이 간격을 두고 남는 것을 말한다.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스플릿은 '스네이크 아이'라 불리는 양 끝에 남아 있는 핀을 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 영화에서 보여준다. 과거 볼링계의 전설이라 불리며 이름을 날리던 철중은 불운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낮에는 가짜 석유 판매원, 밤에는 도박 볼링판에서 선수로 뛰며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지만 볼링만큼은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영혼을 우연히 만난 후, 철중은 영혼을 자신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게 된다. 철중의 조력자이자 도박판의 브로커 희친의 주도 아래 드디어 큰 판이 벌어지게 되고, 철중과 끈질긴 악연의 두꺼비까지 가세해 치열한 승부가 시작되는데...



위대한 레보스키 감독_조엘 코엔 출연_제프 브리시스, 존 굿맨, 줄리안 무어

"내 돈은 어디에 있지, 레보스키?"
이 영화는 한 백수건달이 백만장자로 오해를 받으면서 겪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제프리 레보스키는 삶의 목표도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제프리 레보스키는 볼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화이트 러시안'이라는 칵테일을 늘 손에 들고 다닌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강도가 침입한다. 강도들은 이웃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인 제프리 레보스키와 혼동을 일으켰던 것. 강도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만장자 레보스키의 젊은 아내가 납치당해 돈을 요구당하자, 이 돈의 전달자로 제프리 레보스키가 뽑힌다. 건달 제프리 레보스키는 친구와 함께 백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지만, 불법 주차단속에 걸려 돈가방이 든 차가 견인되는데...



식스볼 감독_채기준 출연_이대한, 강예빈

재미와 반전 모두 잡은 국내 최초 당구 스릴러
당구에서 식스볼의 룰은 색깔공 6개로 진행되며 초구는 무조건 검은색 공을 맞히고 다른 색깔 공을 한 번 더 맞으면 점수가 나는 게임이다. 시작 전, 화투패로 숫자를 확인하고 이 숫자와 점수를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다. 대한민국에서 당구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선수급 성훈은 우연한 계기로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용 사장의 사기 당구 시험 한판으로 돈과 왼손까지 다치게 되면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리고 자부 용 사장과 얽히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훈은 끝내 복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내기 도박 당구 세계에 뛰어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실장과 서경 등과도 복잡하게 얽히고설킨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성훈은 결국 용 사장을 만나 모든 것을 건 도박 당구 한판을 제안하는데, 긴박하게 펼쳐지는 통쾌한 복수 스릴러.



S

Replay restart



다시 도전하는 인생! Replay restart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적인 위치만을 찾는 건 결국 퇴보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 용기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다.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에 자신감을 굳게 세울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은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T

S

구·군체육회

남구체육회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수)에 진행할 예정이던 제5차 이사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서면결의로 대체해 실시했다.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동을 보고했고 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정(안),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개정(안), 스내그골프협회 인정단체 가입(안), 부산광역시남구 풋살협회 제명(안)을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북구체육회 체력 증진 돕는 운동 동영상 제작해 게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북구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임 활동의 제약으로 대회와 행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구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맞서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와 맨몸 위주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건, 페트병, 세라밴드, 폼롤러 등을 이용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칭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해운대구축구협회 동호인 친선경기



지난 9월 6일(일)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해운대구 관내 축구회를 대상으로 한 '해운대구축구협회 동호인 친선경기'가 개최되었다. 행사 관계자와 동호인들은 안전하고 철저한 야외 체육시설물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로 경기를 무사히 진행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화려한 개인기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번 친선경기로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 결과로는 1위 반여축구회, 2위 장산축구회, 3위 해동축구회·우2축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금정구체육회 2020 k7 금정구리그 5라운드



금정구축구협회는 지난 9월 13일(일)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2020 k7 금정구리그 5라운드'를 개최했다. 맑은 날씨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팔송축구회와 구서축구회 2팀의 동호인들이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서구체육회 (주)위드 건강해 GYM 업무 파트너십 협약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8월 11일(화) (주)위드 건강해 GYM과 업무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우리 지역 아동,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체육회는 지도자 현장수업을 지원하고 뉴 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 스포츠 관련 행사 연구체계 구축,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수업 콘텐츠 협력, 건강증진활동 관련 사업 및 연구에 공동참여, 강사교육과 자격과정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실험분석 및 자료의 공동 이용을 약속하며 상호 협력기로 했다.

연제구체육회 2020년 통합 제4대 부산광역시 연제구체육회장 당선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7월 5일(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통합 제4대 부산광역시 연제구체육회장 김진근 회장의 당선증 수여식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이사회 임원, 종목별 회원단체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상구체육회 2020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8월 8일(토)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2020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 서핑보드, 스탠드업 패들보드 등 레저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시원한 파도를 가르며 짜릿함이 매력 만점인 서핑보드와 보드 위에 서서 패들로 나아가는 서핑과 카약, 카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만끽하는 알찬 시간이었다.

회원종목단체

제57회 청룡기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개최

지난 8월 2일(일)부터 13일(목)까지 12일간 경남 고성군 스포츠타운 1, 3, 4구장, 동고성구장에서 제57회 청룡기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가 개최됐다. 대한축구협회와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부산일보, 부산광역시축구협회, 경남고성군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9개 시·도 26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 중대부고와 지난 대회 우승팀인 용인시축구센터 U18 덕영을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관중으로 실시되었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든 경기가 가족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중계돼 큰 호평을 받았다.



제51회 부산MBC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개최

지난 8월 30일(일)부터 9월 10일(목)까지 12일간 경남 양산종합운동장, 양산보조구장, 하북1구장, 하북2구장, 수질정화공원 축구장에서 제51회 부산MBC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축구협회와 부산MBC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양산시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7개 시·도 24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 포항스틸러스 유스팀인 경북 포항제철고U18가 3-0으로 같은 지역 경북 영덕고를 꺾고 작년에 이어 2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관중으로 실시되었지만, 예선전은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했고 결승전은 부산MBC 생방송과 유튜브로 중계했다.

(*2020년 2월 동계전국대회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월, 7월 2회 대회가 연기되면서 9월 하계전국대회가 되었음)



부산공공스포츠클럽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생명나눔 위한 헌혈 봉사 -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부족한 혈액수급난 해소 기여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9월 18일(금)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부족한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임직원은 마스크착용, 발열검사,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안전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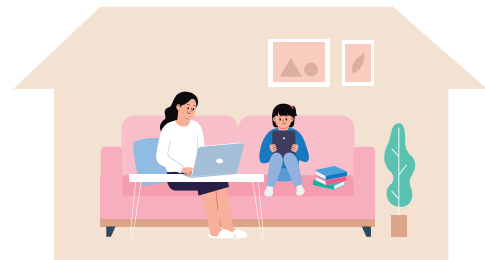
이날 봉사에 참여한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황경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센터 운영이 잠정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이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길 기원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는 정상 운영을 위해 현재 건물 전체 청소와 방역과 소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센터를 찾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해 발열을 체크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헌혈봉사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과 함께 주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01 꿈나무체능단 잠정 휴원

코로나19로 인해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잠정 휴원에 들어갔다. 학부모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솜씨를 뽐내는 참여수업도 진행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름캠프를 다녀오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가정에만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정성껏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원격수업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각 가정으로 배송을 했다. 매일 아침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공유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어 함께 웃으며 수업하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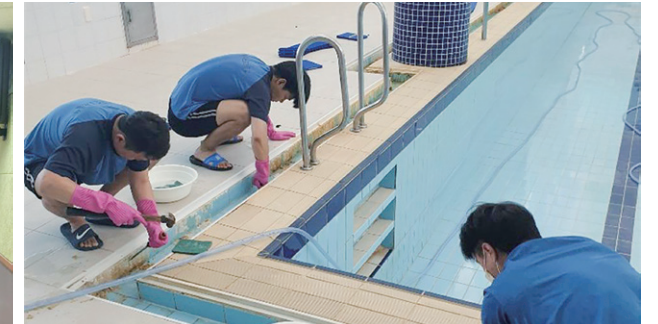
02 여름방학 프로그램 종료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건전한 스포츠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해소 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지난 8월 30일(일)부터 실시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코로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0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청소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예방 차원에서 지난 8월 21일(금)부터 임시 휴관을 시행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수조의 물 때 제거와 탈의실, 샤워실, 헬스장, 관망대, 스튜디오A·B, 복도 등 센터 모든 시설물 방역 그리고 대청소를 실시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모든 임직원은 하루빨리 운영 재개할 날만 기다리며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

02 환경개선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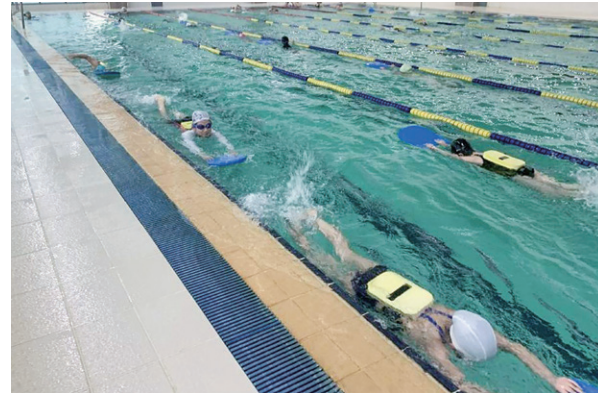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북구청과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해 북구국민체육센터 실·내외 환경개선공사를 지난 6월에 시작해 9월 마무리했다. 센터 복도벽면 도색, 탈의실 천장교체, 건물외벽 도색, 계단 미끄럼방지, 수영장 누수공사, 3층 수영장 전망대, 4층 옥상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새롭게 꾸며진 3층 수영장 전망대와 옥상은 지역민들을 위한 심터로 즐겁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보급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

01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지난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면역력 증진과 신체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수영과 탁구, 스쿼시 프로그램 등이 개설되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무더운 여름 방학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이 즐겁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02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직업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영도구 내 고신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2명이 근로한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취업 전 직장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용이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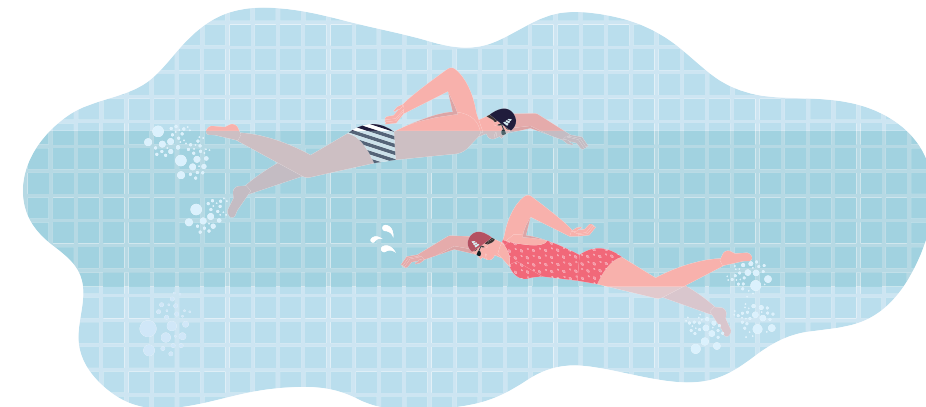
01 수영장 대청소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휴장 기간 동안 수영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수영장 실내외 대청소를 실시해 수영장 이용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장은 "우리 체육시설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도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02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종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영,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 종강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모집인원을 적게 해서 진행한 결과 아이들의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고,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매년 방학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신 뉴스

SPORTS NEWS

NEWS. 01

2020 상임심판 직무교육 개최 -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정 문화 확립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13일(목)과 14일(금)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 상임심판 직무교육'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정 문화 확립을 위한 상임심판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올해 상임심판 직무교육은 종목별 상임심판 125명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담당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등 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 2차로 나누어 각 하루씩 분산 개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종목별 대회 현장에서 상임심판 업무 수행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과 올바른 심판 태도를 집중 함양할 수 있도록 ▲ 국제심판의 역량과 역할(마영삼 국제탁구연맹 심판위원장), ▲ 프로스포츠 심판운영 사례 및 판정문화의 변화 흐름(장준혁 전(前) KBL 심판부장), ▲ 스포츠인권교육 :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판의 역할(정석훈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 상임심판 평가제도 설명 및 종목별 토론 등 심도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상임심판의 역할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상기하고 경기운영 능력과 자질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심판의 판정으로 경기 운영의 질이 결정됨은 물론, 선수와 한국 체육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매순간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판정 문화 확산과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심판 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상임심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0년 현재 기준, 심판 운영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종목, 기타 상임심판 제도가 필요한 종목 등 총 19개 종목 소속 125명의 상임심판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2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 - 모집 유형에 따라 종합형 5개소, 학교연계형 42개소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 2020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모집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앙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 프로그단,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청 등 신청 단체는 안정적인 시설 및 매칭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올해는 모집 유형에 따라 종합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5개소, 학교연계형(한 종목) 42개소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형은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5개 종목, 중소도시형은 인구 20만 명 미만으로 3개 종목, 학교연계형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1개 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직접 공모·선정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지난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이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은 신청시설 기준으로 각 17개 시·도체육회에서 공모·선정하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이다. 유형별 총 3~5단계(서류·발표·현장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형은 11월 6일(금), 학교연계형(한 종목)은 11월 16일(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5년 간 최대 4~9억 원을 지원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및 17개 시·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125개소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3

폴메이드와 방역마스크 전달식 개최

-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훈련 중인 국가대표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 2일(수) 오전 11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폴메이드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방역마스크 10,000장을 전달받았다. 이번 방역마스크 전달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촌외 비대면 훈련 진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달식은 대한체육회 신치용 선수촌장, 폴메이드 이원일 대표이사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신치용 선수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방역마스크를 지원해주신 폴메이드에 깊은 감사로 드린다"라고 말했다. 폴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방역마스크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폴메이드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지난 3월에도 방역마스크 5,000개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전달한 바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단신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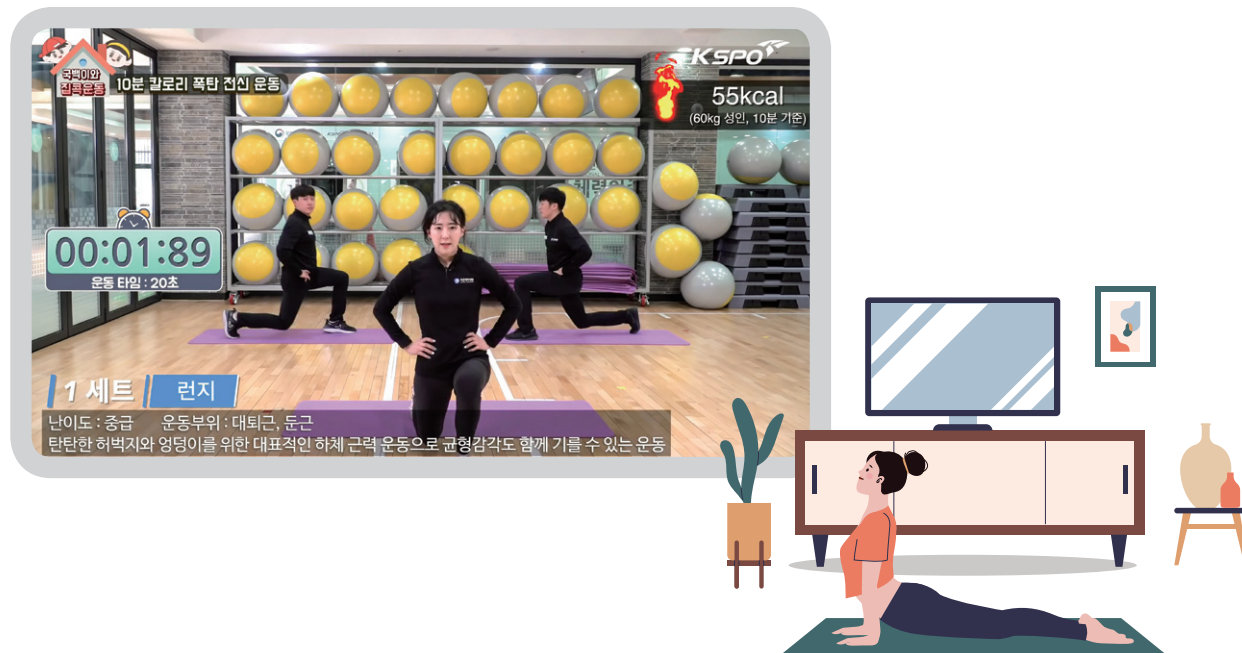
NEWS. 04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월 매주 2회씩 점심시간 30분 운동으로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 완화 기대

“매주 2회 하루 30분 운동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300명 이하 사업장 2개소이다.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24일(목)까지 주 2회씩 점심시간마다 운영된다. 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가 비대면으로 근로자를 위한 운동을 지도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운동용품을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화상회의 플랫폼인 Google Meet에 접속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 본 운동 - 정리운동으로 진행된다. 본 운동은 슬로우 버피와 마운틴 클라이머 등 전신운동, 스쿼트와 런지 등 하체운동, 팔굽혀펴기와 솔더 프레스 등 상체운동, 크런치 등 몸통운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이번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코로나19로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 확대로 만족도가 높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개인별 체력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이다. 만 11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서비스 이용과 예약문의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spo100>)에서는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NEWS. 05

스포츠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국내·외 60개 스포츠산업기업 및 협회·단체 등 참여우수 스포츠산업기업 정보제공 및 기업담당자와의 실시간 온라인 상담제공·SI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MBTI 성격검사, 취업컨설팅 운영

“스포츠로 튼튼, 일자리로 든든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만나요”



대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2020년도 스포츠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 기업 및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기업은 60여 개로 이들은 공단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에 참가해 양호한 성과를 낸 기관들과 취업준비생 및 인턴지원자의 선호를 반영해 선정된 기업들이다.

공단은 14일부터 오픈하는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jobspois-jobfair.co.kr>)에서 기업별 맞춤 영상을 통해 기업정보 및 채용 팁을 제공한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SI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무적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MBTI 성격검사가 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전문가가 1대 1 맞춤형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답변 완성 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실무자와 온라인 토크쇼를 통해 평소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주고받는다. 모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는 양질의 인재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박람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유망한 스포츠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좋은 인재를 기업에게 소개해 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취업준비생과 구인기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양방향 척추내시경!



당신의 척추·관절 질병과 싸워줄 박원욱병원!

척추 · 관절 · 뇌질환 · 스포츠의학 · 통증치료



개인별 스포츠의학 재활치료 시스템

박원욱병원 | 진료 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09:00 ~ 17:00, 수요일 09:00 ~ 13:00, 목요일 09:00 ~ 13:00, 금요일 12:30 ~ 13:30 | 진료 내용: 척추·관절(정형외과, 신경외과)/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 병원 위치: 지하철 2호선 광안역 5번 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 | 진료 문의: 1544-7582 | www.parkspine.co.kr www.scoliosis.co.kr

BRONS COFFEE 브론스 / 커피 파우치 음료

자연생각 자연생각 / 아이스티 파우치 음료

아메리카노 블랙 |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 애플망고 | 청포도 | 복숭아

HEECHANG YANGSAN COUNTRY CLUB CAFE 봄봄 BRONS COFFEE 자연생각

본사 / 50592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7길 45 / TEL | 055-911-3000 / FAX | 055-912-1212 / www.heechang.com

Date Summer time

오늘밤은
대선이야!

대선 (주)
대선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이

렛츠런파크

우리가족은 렛츠런파크로 렛츠고~!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짜릿한 승부
경주 관람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장



자연체험 학습장
빅토빌리지

Lets Run PARK 부산경남

부산 · 경남 최고의 말 테마 가족공원 렛츠런파크

www.kra.co.kr | 대표전화 1566-3333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매년 2,000여억 원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지방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